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50-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2025년 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 여름날씨에 대한 인식

2025. 10. 1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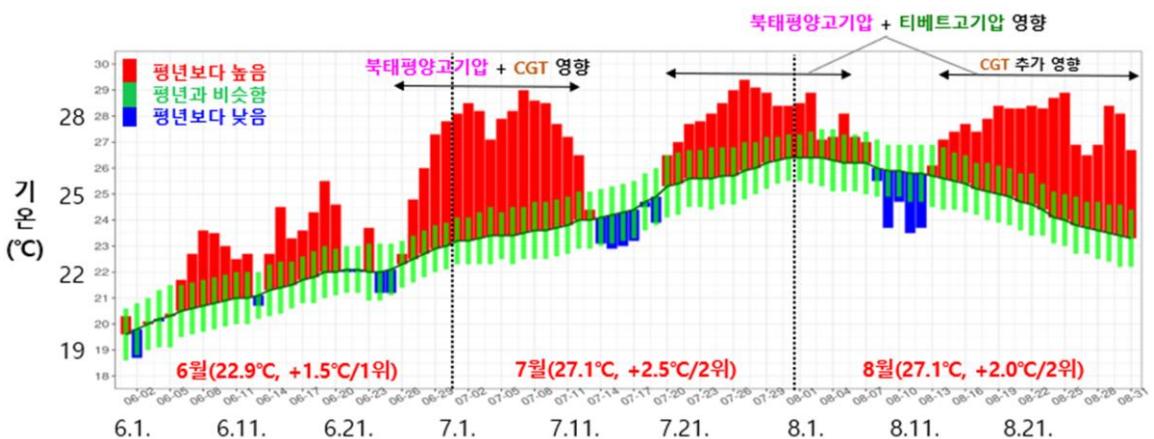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025년 여름 날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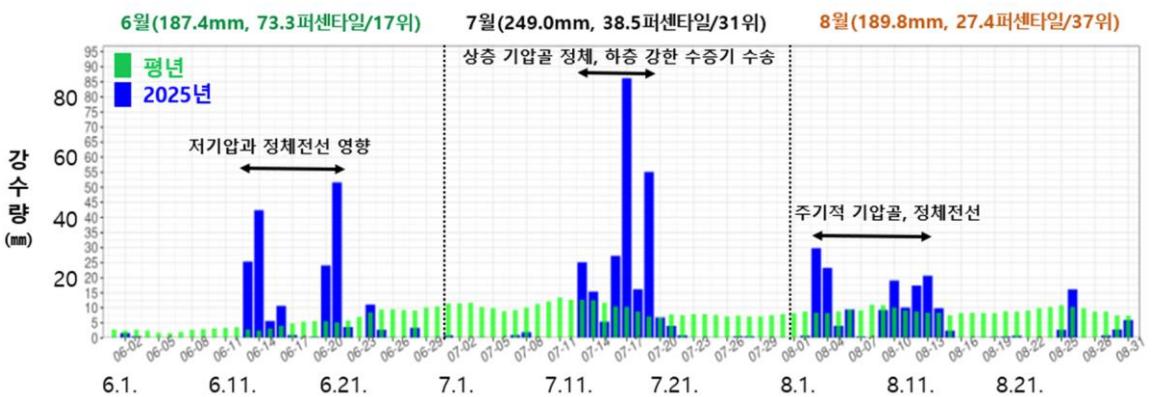
여름철 평균기온 역대 1위 경신, 2년 연속 가장 뜨거운 여름 보내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적은 수준

지난 9월 4일,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올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가장 더웠던 2024년 여름 평균기온(25.6도)보다 0.1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2년 연속,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이다. 열대야 일수 또한 15.5일로 역대 4위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은 열대야일수가 46일로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반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619.7mm로 평년 대비 85% 수준으로 적었다. 장마철 강수량 또한 200.5mm로 평년 대비 55%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여 올해 장마비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일찍 종료되었다'고 분석하였다.

2025년 여름철(6월 ~ 8월) 전국 평균기온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2025년 여름철(6월 ~ 8월) 전국 강수량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출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기상청 보도자료, 2025년 9월 4일

https://www.kma.go.kr/kma/news/press_01.jsp?bid=press&mode=view&num=1194521

2025년 여름 예년에 비해 더웠다 83%, 2024년 여름보다 '많이 더웠다'는 인식은 낮아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았다는 평가와 적었다는 평가 혼재

2025년 9월 19일 ~ 22일 진행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83%)은 올 여름이 예년보다 더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51%는 '많이 더웠다'고 평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더웠다'는 인식이 두드러지는데, 60대는 62%, 70세 이상은 71%가 '많이 더웠다'고 평가한 반면, 18~29세는 36%, 30대는 39%만이 '많이 더웠다'고 평가해 차이를 보인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더웠다'는 응답이 79%에서 51%로 줄었고, 대신 '더운 편이었다'는 응답이 15%에서 32%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평균기온이 작년보다도 0.1도 높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2024년보다는 조금 덜 더운 여름으로 인식한다. 2024년에는 조사 시점인 9월까지도 무더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024년 9월 평균기온 역대 1위).

평년보다 비가 덜 내렸지만, 강수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번 여름에 '예년보다 비가 더 내렸다'는 응답은 36%, '비슷한 수준'으로 내렸다는 응답은 27%, '덜 내렸다'는 응답은 37%이다.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수량 또한 세대별 인식차이가 확인되는데,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4명이 '예년보다 더 내렸다'고 생각하는 반면, 2·30대는 10명 중 4명이 '예년보다 덜 내렸다'고 생각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올 여름 예년보다 '많이 더웠고', '비도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고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기온						강수량		
	많이 더웠다	더운 편이었다	예년보다 더웠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선선했다	예년보다 많았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적었다	
						36	27	37	
전체	(1,000)	51	32	83	14	3	36	27	37
성별									
남자	(495)	49	31	80	17	3	32	33	35
여자	(505)	53	32	85	12	2	39	22	39
연령									
18~29세	(151)	36	34	70	24	6	27	29	43
30대	(150)	39	35	75	18	7	31	30	39
40대	(172)	42	37	79	19	2	36	30	34
50대	(195)	55	30	85	13	2	37	27	36
60대	(178)	62	30	92	7	1	39	23	38
70세 이상	(154)	71	23	94	5	1	43	25	32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51	32	83	14	3	38	29	33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51	31	83	14	3	32	25	44

질문 : (기온) 올해 여름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강수량) 올해 여름 내린 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에 내린 비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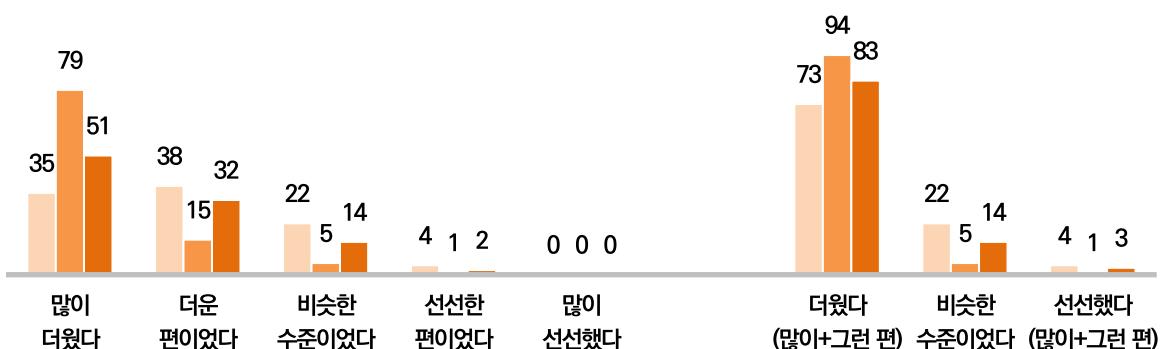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9. 19 ~ 22

2025년 여름 예년에 비해 더웠다 83%, 2024년 여름보다 ‘많이 더웠다’는 인식은 낮아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았다는 평가와 적었다는 평가 혼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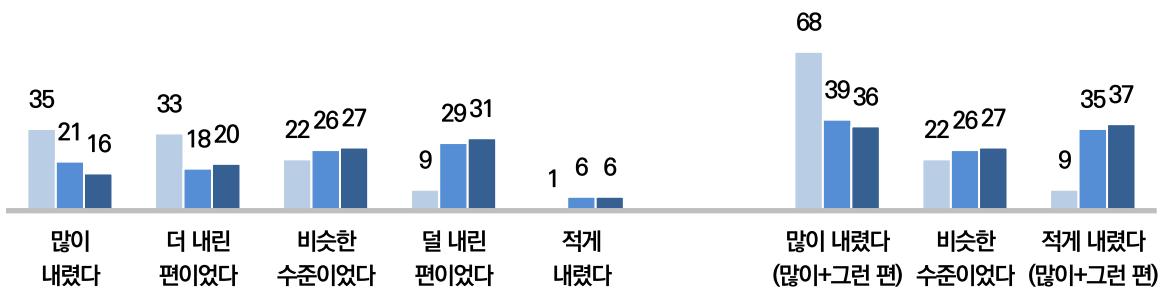
여름 기온 인식

■ 2023년 여름 ■ 2024년 여름 ■ 2025년 여름



여름 강수량 인식

■ 2023년 여름 ■ 2024년 여름 ■ 2025년 여름



질문 : (기온) 올해 여름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강수량) 올해 여름 내린 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에 내린 비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9. 22 ~ 25 // 2024. 9. 27 ~ 30 // 2025. 9.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2025년 여름나기

이번 여름 열대야로 밤잠 설친 경험 있는 사람 80% 10명 중 6명(59%)은 더위나 폭우로 일상생활에 지장 받은 경험 있어

역대 가장 무더웠던 여름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덥거나 습해서 밤잠을 설쳤다'는 사람은 전체의 80%이다. 2024년 여름(86%) 대비 6%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여름 열대야로 밤잠을 설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도 강해져, 18~29세는 66%가 열대야로 밤잠을 설쳤다고 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50대 84%, 60대 89%, 70세 이상 84%).

더위나 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59%이다. 지난해 여름(60%)과 비슷한 수준이다. 10명 중 2명(19%)은 '더위나 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특히 자신의 계층을 '최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30%가 이번 여름 날씨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번 여름 열대야로 밤잠 설친 경험 있는 사람 80% 10명 중 6명(59%)은 더위나 폭우로 일상생활에 지장 받은 경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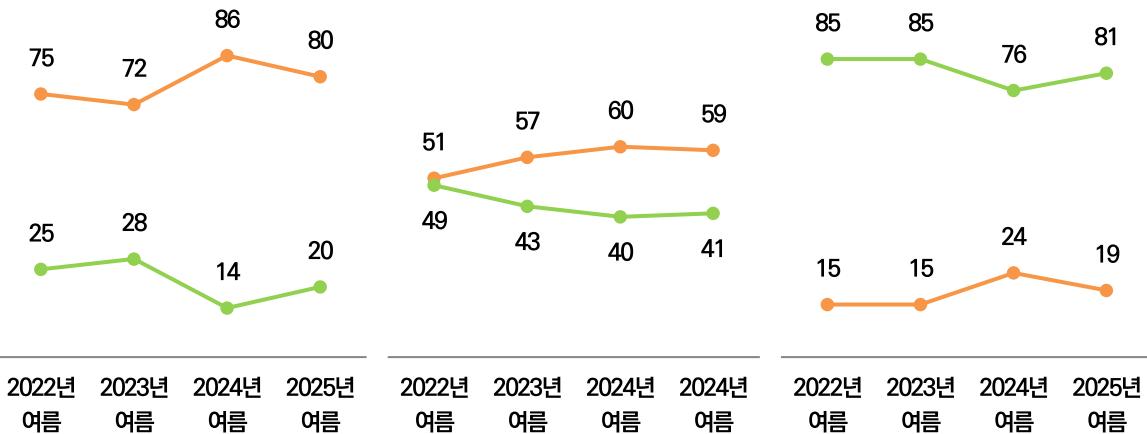
(단위 : %)

■ 그렇다(매우+그런 편) ■ 그렇지 않다(전혀+그런 편)

덥거나 습해서
밤잠을 설쳤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질문: 올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9. 16 ~ 19 // 2023. 9. 22 ~ 25 // 2024. 9. 27 ~ 30 // 2025. 9. 19 ~ 22

**50대 이상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열대야로 밤잠 설쳐’
스스로를 ‘최하층’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30%는 날씨 때문에 건강 악화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덥거나 습해서 밤잠을 설쳤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체	(1,000)	30	80	14	59	5
성별						
남자	(495)	29	81	12	59	4
여자	(505)	31	78	16	58	5
연령						
18~29세	(151)	24	66	19	58	7
30대	(150)	35	77	17	63	8
40대	(172)	30	75	14	61	6
50대	(195)	30	84	11	53	5
60대	(178)	31	89	11	59	1
70세 이상	(154)	31	84	14	59	4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30	79	13	60	4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30	80	16	57	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8)	33	80	15	62	5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85)	30	82	14	60	5
600만원 이상	(307)	28	76	13	54	5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층	(147)	37	78	17	65	8
중하층	(443)	31	81	14	58	3
중간층	(298)	25	80	13	56	5
상층	(94)	26	72	14	59	6

질문 : 올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9.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이번 여름 날씨 체감수준, 평균적 날씨 범주 벗어났다 80% 기후위기를 체감한 사람도 85%

여름 평균기온이 불과 1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남, 전남 등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반면 강원영동 지방은 최근까지도 가뭄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날씨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눈앞에 닥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여름 날씨가 ‘평균적인 날씨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전체의 80%이다. 2024년 여름의 평가(92%)보다 12%포인트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이번 여름 날씨가 예년과 같지 않음을 실감하였다. 이번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도 전체의 85%이다. 역시 2024년 여름 평가(92%)에는 못 미치지만, 성별이나 세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며 기후위기를 체감한 사람이 다수이다. 다만, 2·30대 응답자 10명 중 2~3명은 이번 여름 날씨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4명 중 1명은 기후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2·30세대는 올해 여름날씨에서 이상기후를 감지했지만, 일부는 이상기후나 기후위기에 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 날씨 체감수준,
평균적 날씨 범주 벗어났다 80%, 비슷하다 18%

(단위 : %)

- 평균적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
- ▣ 모르겠다
- 평균적인 날씨의 범주 벗어남

23~24년 겨울

48

48

24년 여름

7

92

24~25년 겨울

44

52

25년 여름

18

80

이번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한 사람은 85%

(단위 : %)

- 기후위기를 체감
- ▣ 모르겠다
- 기후위기 특별히 체감 안함

23~24년 겨울

60

33

24년 여름

92

6

24~25년 겨울

60

33

25년 여름

85

12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날씨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 2024. 9. 27 ~ 30 // 2025. 3. 21 ~ 24 // 2025. 9. 19 ~ 22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이번 날씨에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 2024. 9. 27 ~ 30 // 2025. 3. 21 ~ 24 // 2025. 9. 19 ~ 22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번 여름 날씨가 평균적인 범주를 벗어났다는 의견 다수
이번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도 성별이나 연령대 관계없이 다수

(단위 : %)

사례수 (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여름 날씨는…			이번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평균적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평균적인 날씨의 범주를 벗어났다	모르겠다	체감했다	특별히 체감하지는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1,000)	18	80	2	85	12	3
성별							
남자	(495)	21	77	2	81	17	2
여자	(505)	15	83	3	89	8	3
연령							
18~29세	(151)	28	67	5	73	21	6
30대	(150)	26	69	5	78	18	4
40대	(172)	17	81	3	85	12	2
50대	(195)	19	80	1	90	9	1
60대	(178)	9	91	1	93	6	2
70세 이상	(154)	10	90	0	89	10	1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17	80	2	85	12	3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19	79	2	85	13	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8)	19	78	3	82	14	4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85)	16	82	2	88	10	2
600만원 이상	(307)	19	79	2	84	14	2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층	(147)	16	81	3	85	11	4
중하층	(443)	17	81	2	86	12	2
중간층	(298)	20	78	2	85	13	2
상층	(94)	19	77	3	85	13	2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9.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5년 8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31,214명, 조사참여 1,572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2%, 참여대비 63.6%)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9월 19일 ~ 9월 22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